

항일정신 품은 밤, 역사의 빛으로 되살아난다

보성 국가유산 야행, 24~25일 보성읍 일원

야간 조명·미디어아트·공연형 프로그램 등

고국과 항일의 정신을 품은 보성의 밤이 역사의 빛으로 물든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보성읍 일원에서 '2025 보성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올해 야행은 '조선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외치다'를 주제로, 국가유산청과 전남도가 후원하고 보성군이 주최·주관한다.

'야행(夜行)'은 밤에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으로, 이번 행사는 낮에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통해 보성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한다.

보성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군량미를 확보했던 조선의 희망의 땅이다. '신에게는 아직 열 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라는 장계가 울려진 곳이기도 하다.

또한 '보성 오층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우이자 행주대첩의 숨은 공신인 선거이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보



성 향교'는 일제강점기 항거의 불씨가 된 보성향교 제주조난사건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야행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빛과 이야기, 체험이 어우러진 8개 분야 16종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문화유산을 미디어아트와 조명으로 재해석한 야경(夜景), 빛으로 그리는 체험형 프로그램 야화(夜畵), 역사 인물이 직접 해설하는 투어형 프로그램 야로(夜路), 방진관·오층사에서 들려주는 이순신과 선거이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야설(夜說) 등이 대표적이다.

이울러 관객이 참여하는 공연형 프로그램 야사(夜史), 지역민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당근마켓1597'과 먹거리 장터 야식(夜食), 그리고 춘운서옥에서 진행되는 차명상 체험 및 하룻밤 숙박 프로그램 야숙(夜宿)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됐다.

특히 대표 체험인 '군량미를 구하라'는 임진왜란 당시 보성 특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모아 수군 재건의 불씨를 살린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군량미를 모으고 조양창에 기부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심시일반으로 조선을 구한 군량미'의 의미를 오늘날의 나눔과 기부 문화로 확산하는 상징적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군 관계자는 "보성 국가유산 야행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 모델"이라며 "가을밤 은은한 조명 아래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보성의 특별한 야간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광양경제청, 쇼츠 공모전 개최

국민 참여형...31일까지 접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31일까지 국민 참여형 '2025GFEZ유투브 쇼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광양만권 산업단지 변화와 성장 스토리 △투자 성공 사례와 기업 이야기 △여수·순천·하동의 관광 매력과 특산물 등을 포함한 자유 주제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형식은 20~60초 분량의 쇼츠 영상으로 제작과정에서 AI 이미지·영상·음원 활용도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전달성, 완성도, 활용성 등 5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저작권 침해나 규격 미준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상금은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2편 각 50만원, 장려상 3편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구축된 광양만권경제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지정돼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등 4개 시군 57.08km² (17개 산업단지)에 철강, 화학, 에너지와 물류, 해양관광산업 등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오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

화순, 최현우 미술사 강연

15일 '편견을 깨는...' 주제

화순군은 오는 15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군민행복 아카데미 8회차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국내 최고의 미술사 최현우가 강연자로 나선다. 최현우 미술사는 세계미술협회(FISM) 클로즈업 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최현우 매직 컬러 섹터' 전국투어 공연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미술의 매력을 널리 알려온 인물이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편견을 깨는 미술 같은 3가지 이야기'란 주제로 미술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속 고경관과 편견을 깨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적 사고와 창의적인 접근이 삶의 시야를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061-379-3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고흥,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1호 준공

월세 1만원 임대료... 귀농·귀촌 정착 발판 마련

고흥군은 최근 포두면 미후마을에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1호'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과 마을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만원 세컨하우스 준공과 입주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는 지역 내 유후 빈집을 최장 7년까지 임대하고, 건물 상태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도시민 전임자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세컨하우스 1호의 입주자는 "도시에서 정년퇴직 후 귀농을 고민하던 중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지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만원 세컨하우스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의 발판이 돼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고흥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권역별로 5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첫날 15만명의 구름인파가 몰려대성황을 이뤘다.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첫날 15만명 운집

12일까지 콘서트·문화공연·어린이 체험행사 등 풍성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첫날 15만명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루며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영산강정원에서 개막한 '2025 나주영산강축제'에 15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역대 축제 개막 행사 중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다. 행사장 곳곳의 체험부스, 이벤트 공간, 메인 무대 객석은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5일간 영산강정원에서 펼쳐진다.

영산강의 역사, 생태,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인 '영산강주제관'은 올해 처음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영산강 둔치와 들심 꽃단지 28만㎡ 규모로 조성한 1억 송이 코스모스 대향연에 축제장은 포토존을 비롯해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횡단교와 물위를 걸어갈 수 있는 양방향 징검다리, 연꽃데크같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개막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영

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재남 시의회 의장, 지역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이 참석했다.

윤병태 시장은 "영산강 정원의 변화와 혁신은 현재진행형이다"며 "대한민국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정원 조성과 생태 복원, 접근성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나주영산강축제'는 오는 12일까지 나주삼색유산놀이, 케이팝 콘서트, 전국 가요제, 세계문화공연, 어린이 참여행사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를 통해 가을 나주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나주=조원희 기자 pose007@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 장흥이 딱이야"

군, 시범사업 유치 도전... 군민 응원전 개최

장흥군은 최근 군민회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군민 대응원정을 펼쳤다.

장흥군민회가 주관한 이번 응원전에는 지역주민, 기관·사회단체 등 4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여 군민들은 직접 준비한 피켓,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응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개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절차는 오는 13일까지 접수, 17일

최종 선정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도입을 사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선순환경제 협업 약속서를 체결하는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산업성장 지원 및 고용 창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사업 공고 이후 짧은 기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찬성 회담서를 받고 군민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DECK ROAD

예건 친환경 데크로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YEKUN, 주식회사 예건

I-Beam

Prunus

WALLO

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T.031-943-6114 F.031-943-6698 E.yekun@yekun.com
디자인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8-16 2F T.02-324-1140 F.02-324-3270 E.yekun@yekun.com

www.yekun.com